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14-2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2025년 설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

2025. 01. 22.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설 모임 계획

이번 설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 68%, 지난해 설, 지난 추석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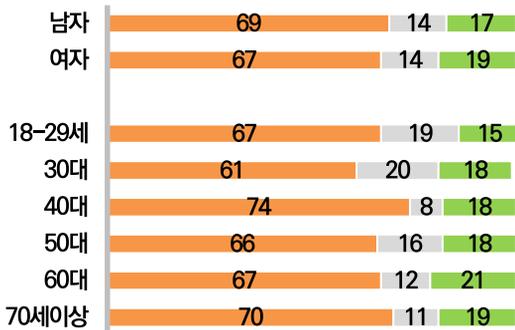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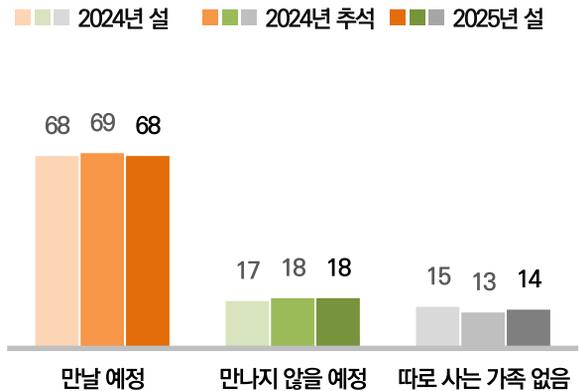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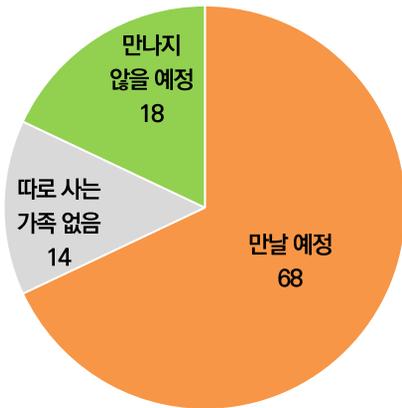
2025년 설 명절을 10일 정도 앞둔 지난 1월 17일 ~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 모임 및 일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번 설 연휴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인 사람은 전체의 68%이다. 따로 사는 가족이 있지만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18%이다(따로 사는 가족 없음 14%). 가족과 만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난해 설(68%) 및 지난 추석(6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대(74%), 기혼(74%)인 사람은 4명 중 3명이 이번 설에 가족과의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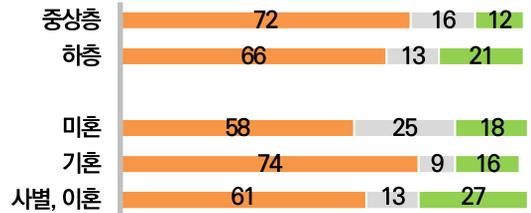
이번 설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 68%, 지난해 설, 지난 추석과 비슷

(단위: %)

따로 사는 가족을...



주관적 계층 인식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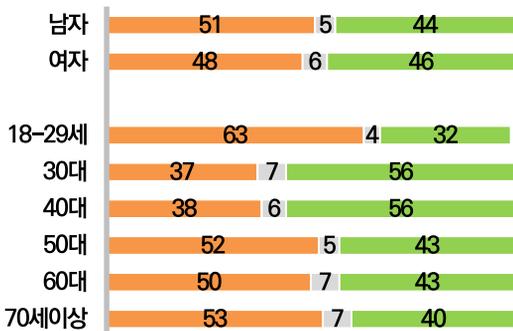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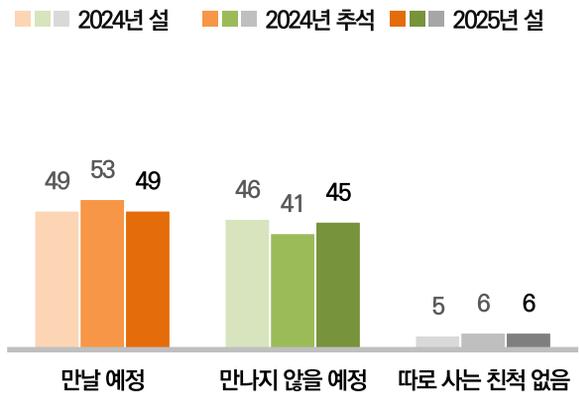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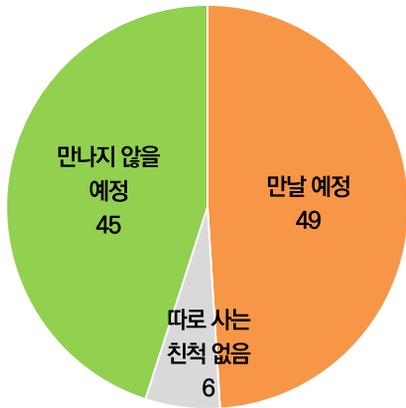
이번 설에 따로 사는 친척과 만날 것 49%, 지난해 설과 동일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4%포인트 낮아

따로 살고 있는 친척을 이번 설에 만날 예정이라는 사람은 전체의 49%이고,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45%이다(따로 사는 친척 없음 6%). 지난해 설과 동일한 수준이고,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감소한 결과이다. 18~29세에서는 63%가 친척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친척을 만날 계획이 없다는 사람이 각각 56%로 절반을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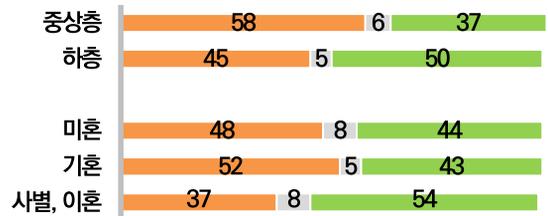
이번 설에 따로 사는 친척과 만날 것 49%, 지난해 설과 동일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4%포인트 낮아 18~29세에서는 63%가 '친척 만날 예정이다'

(단위: %)

따로 사는 친척을...



주관적 계층 인식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이번 설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것 50%, 지난해 설·지난 추석과 비슷 18-29세 중에서는 57%, 미혼인 사람 중에서는 56%가 친구나 지인 만날 계획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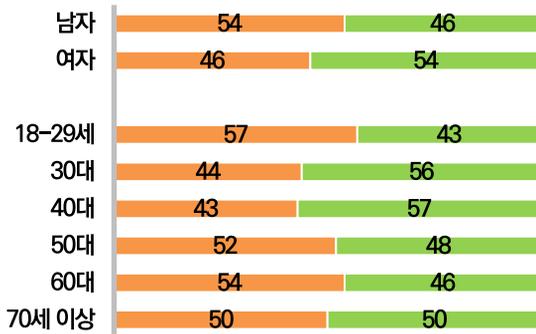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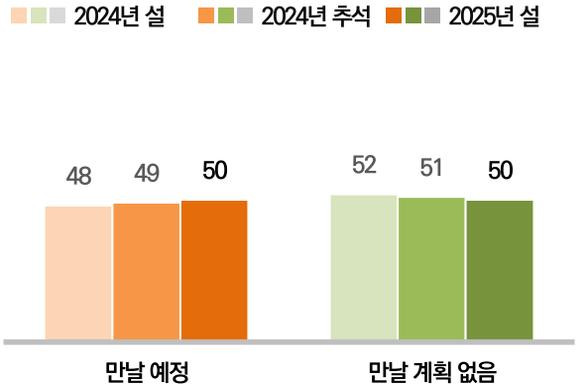
이번 설 연휴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계획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뉜다. 지난해 설과 지난 추석과 비슷한 결과이다. 남성(54%), 18-29세(57%), 미혼(56%)인 사람 중에서는 친구나 지인을 만날 예정인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반면 여성(54%), 30대(56%)와 40대(57%)에서는 친구나 지인을 만날 계획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월 31일 휴가를 낼 경우 이번 설 명절 기간은 최대 9일이 된다. 지난해 설 명절기간(4일), 추석 명절기간(5일)보다 두 배 가량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지인을 만날 예정인 사람은 지난 명절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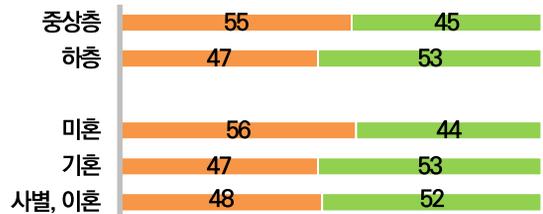
이번 설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 것 50%, 지난해 설·지난 추석과 비슷
18-29세 중에서는 57%, 미혼인 사람 중에서는 56%가 친구나 지인 만날 계획 있어

(단위 : %)

친구나 지인을...



주관적 계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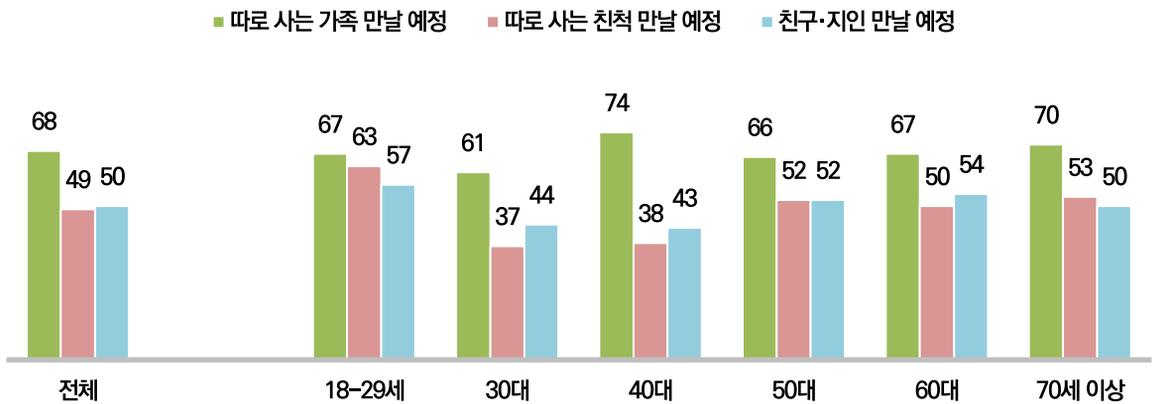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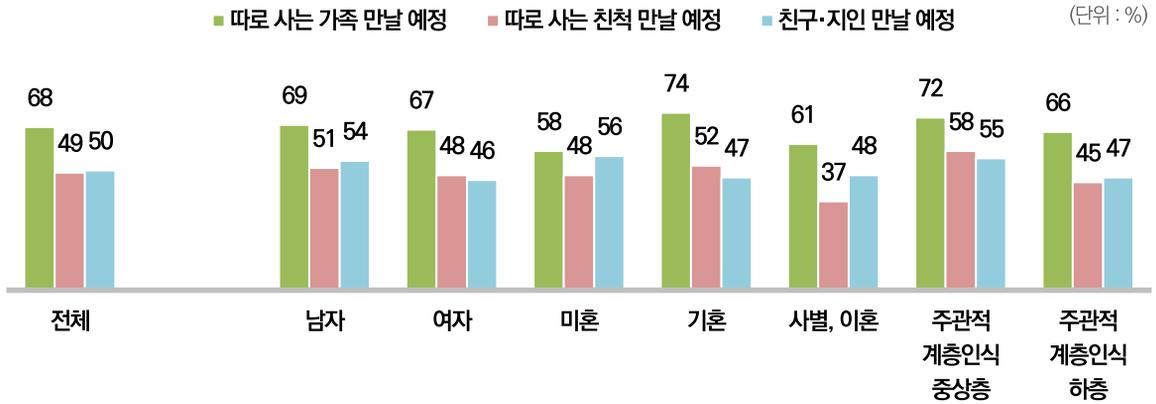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번 설 명절 가족, 친척, 친구·지인과의 모임 계획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여행, 차례 등 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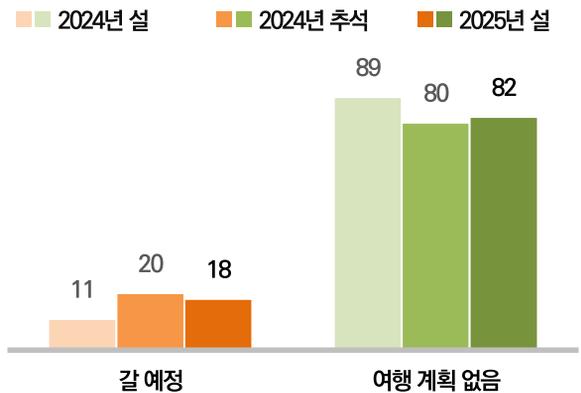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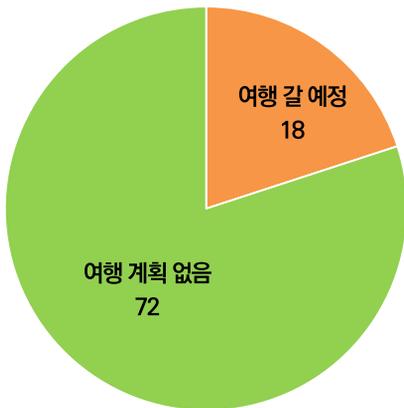
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 예정 18%, 지난해 설 명절 대비 7%포인트 증가

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예정하는 사람은 전체의 18%이다.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이 최장 9일간의 설 연휴 기간동안 국내 혹은 해외 여행을 예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설 보다는 7%포인트 높고, 지난 추석보다는 2%포인트 낮다. 앞서 3·40대는 따로 사는 친척이나 친구·지인을 만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반대로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은 전 세대 중 가장 높다. 30대와 40대 중에서는 각각 24%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다른 세대 대비 최소 5%포인트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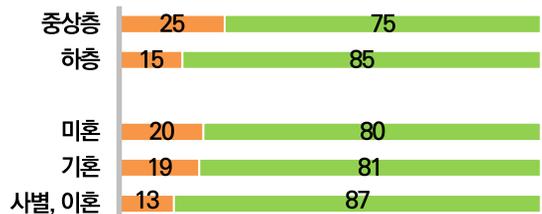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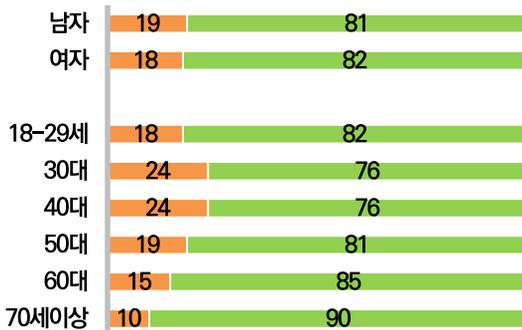
이번 설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 예정하는 사람은 18%, 지난해 설 명절 대비 7%포인트 증가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단위 : %)



주관적 계층 인식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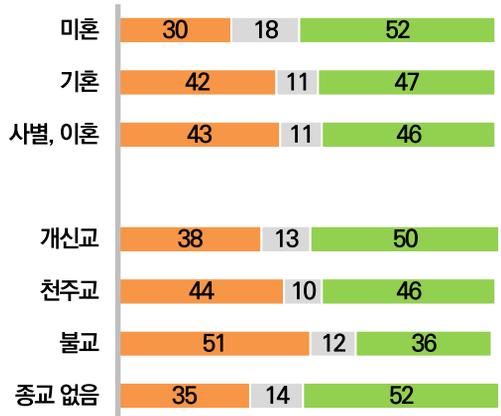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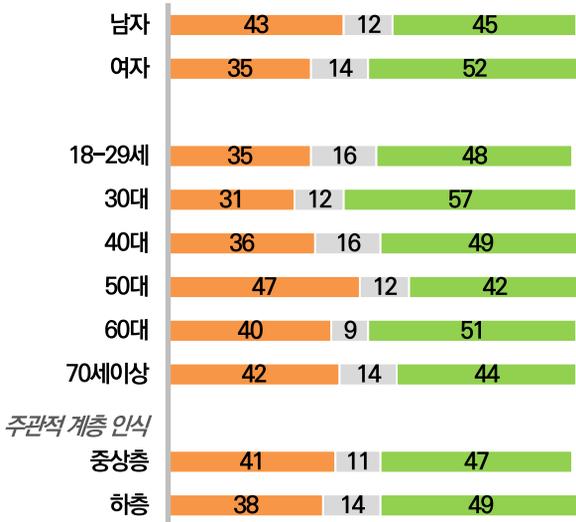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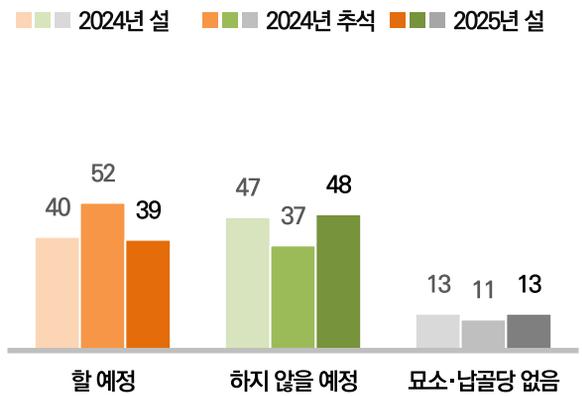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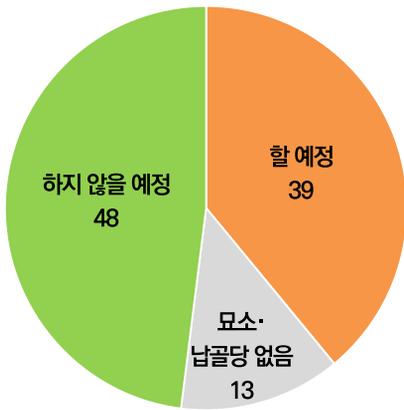
설 명절 기간 동안 ‘성묘·벌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 계획 있다 39% 지난해 설과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13%포인트 낮아

전체 응답자 중 39%가 이번 설에 성묘나 벌초를 하거나, 납골당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설과 비슷한 수준이고,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13%포인트가 감소했다. 50대 중에서는 47%, 불교 신자 중에서는 51%가 이번 설에 성묘·벌초를 하거나 납골당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세대 및 종교 신자 대비 높은 편이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성묘·벌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 계획 있다 39% 지난해 설과 비슷하고, 지난 추석보다는 13%포인트 낮아

성묘·벌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을...

(단위 : %)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 지낸다' 40%, 지난해 설 및 지난 추석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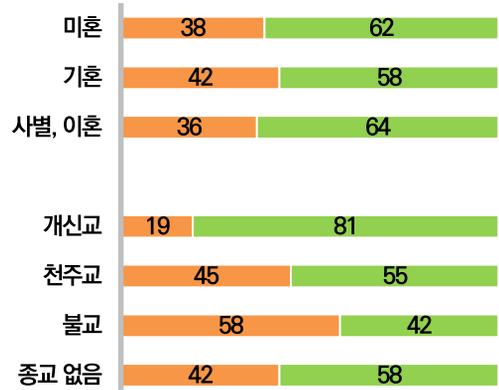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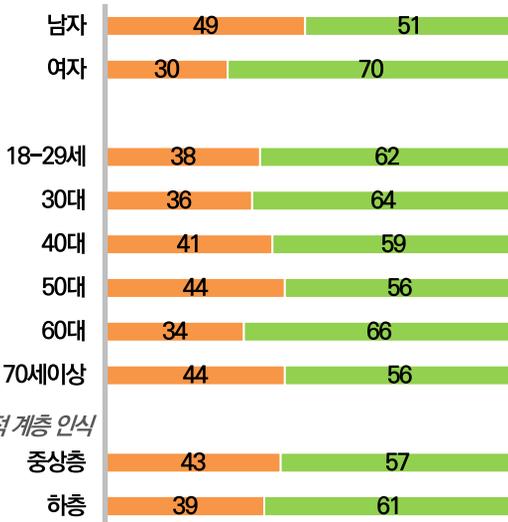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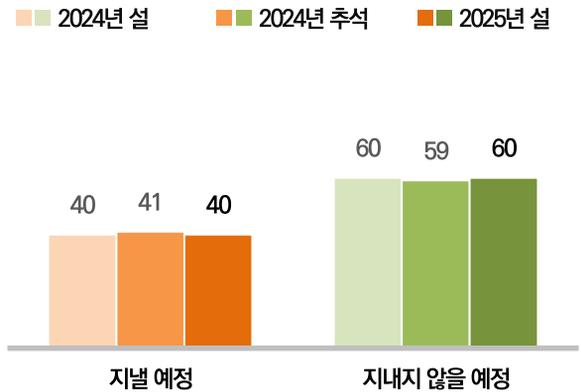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 2,500원, 대형마트 40만 9,510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통시장 비용이 30만 원, 대형마트 비용이 4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고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이다.

명절 상차림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적지 않은 집이 여전히 명절에 차례와 제사를 지낸다.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낸다는 사람은 40%로 지난해 설 및 지난 추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간 차이가 큰 것이 눈에 띄는 가운데(남성 49%, 여성 30%),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19%만이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인 반면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45%가, 불교 신자 중에서는 58%가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고 답해, 종교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사람이 42%, 지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이 5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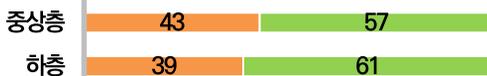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 지낸다' 40%, 지난해 설 및 지난 추석과 비슷

(단위 : %)

우리 집은
차례나 제사를...



주관적 계층 인식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사람 중 61%는 '전, 나물, 탕 등 조리가 필요한 음식 대부분 직접 만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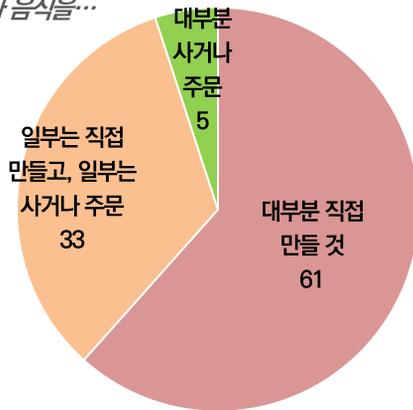
이번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398명에게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전이나 나물, 탕 등 조리가 필요한 제사 음식의 대부분을 직접 만들 것이라는 사람이 61%, 대부분 사거나 주문할 것이라는 사람은 5%이다. 일부는 직접 만들고, 일부는 사거나 주문할 것이라는 사람은 33%이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부담이 크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음식을 직접 만들겠다는 사람이 많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 중에서는 53%가 음식을 대부분 직접 만든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75%가 그렇다고 답해 차이를 보인다.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나 명절 음식 준비는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대별 차이 또한 확인되는데, 60세 이상에서는 72%가 대부분의 음식을 직접 만들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39세 젊은층에서는 직접 만들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절반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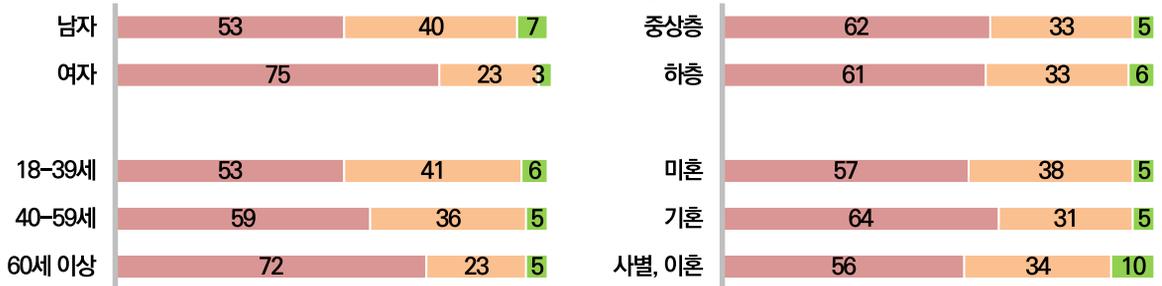
설에 차례나 제사를 지낼 사람 중 61%는 '전, 나물, 탕 등 조리가 필요한 음식 대부분 직접 만들 것' 대부분 사거나 주문해서 상을 차린다는 사람은 5%에 그쳐

(단위 : %)

전이나 나물, 탕 등
조리가 필요한 제사 음식을...



주관적 계층 인식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이번 설에 차례 혹은 제사를 지낼 예정이라는 사람 398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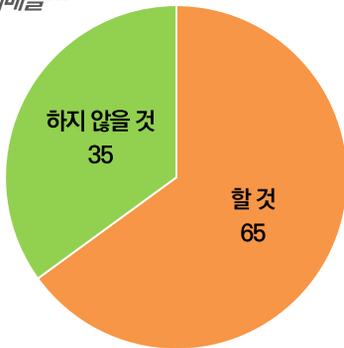
이번 설에 세배 할 것 65%, 떡국 먹을 것 88%

추석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면, 설은 희망찬 새해 시작을 알리는 명절이다. 설의 대표적인 풍습은 세배와 떡국이다. 설날 아침 윗사람에게 큰 절을 올리며 새해 첫 인사를 건네고, 덕담과 세뱃돈이 오가는 모습은 우리 설의 정겨운 풍경 중 하나이다. 설날을 상징하는 음식인 떡국의 길게 늘어진 가래떡은 청결한 시작과 무병장수를 의미한다. 또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설날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이번 설에 세배를 할 것이라는 사람은 전체의 65%이다. 여성(60%)보다는 남성(70%)이 세배를 드릴 것이라는 응답이 높다. 50대 이하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설에 세배를 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58%만이 설에 세배를 할 것이라고 답해 다소간에 차이를 보인다. 반면 이번 설에 떡국을 먹는다는 사람은 88%이며, 성별이나 세대 관계없이 10명 중 8~9명은 떡국을 먹을 것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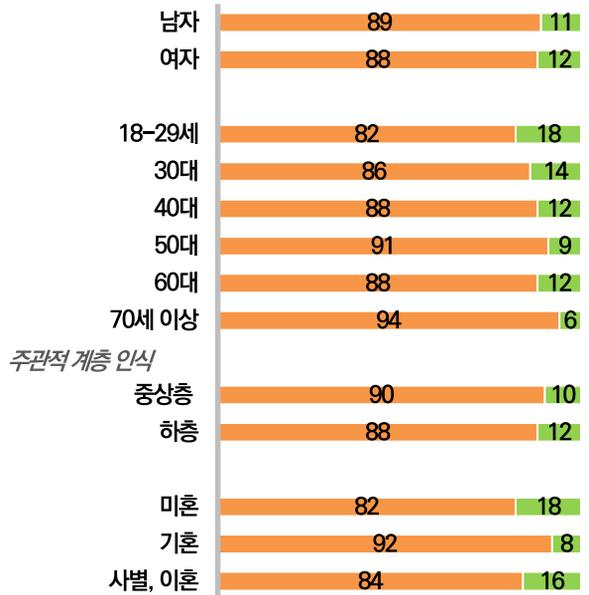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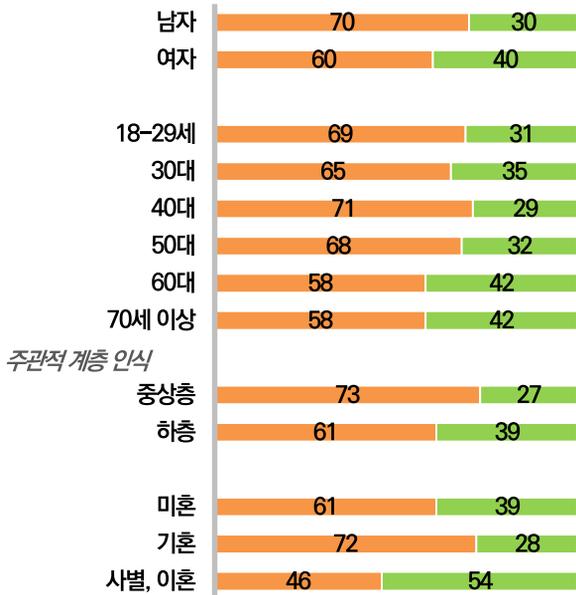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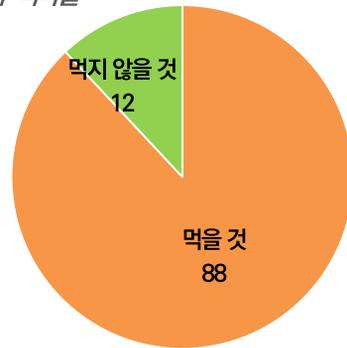
이번 설에 세배 할 것 65%, 떡국 먹을 것 88%

이번 설에 세배를...



이번 설에 떡국을...

(단위 : %)



질문: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3

설 풍습에 대한 인식

4명 중 3명 이상이 설을 전후해 따로 사는 가족 만나기, 떡국 먹기, 세배 필요하다고 인식 차례 혹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사람은 43%로 절반 이하

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 세배를 드리고, 차례상을 차리고, 떡국을 먹는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설 풍경이다. 설날의 다양한 모습 중,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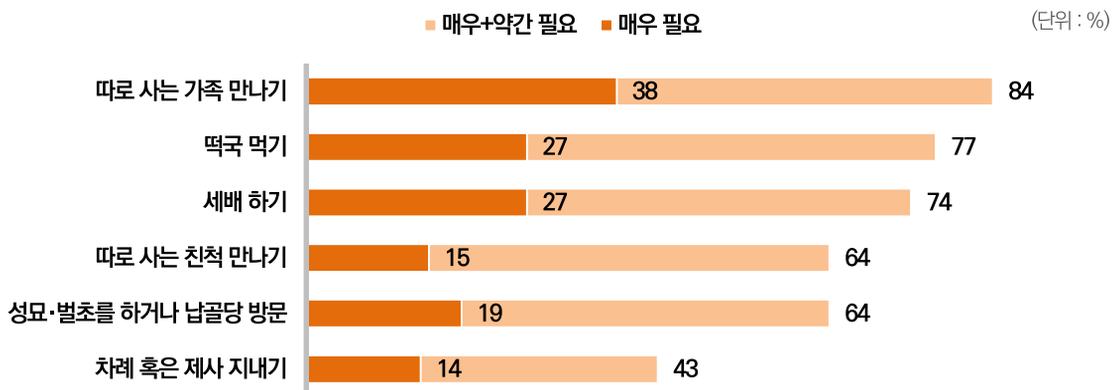
설을 전후해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전체의 84%이다(매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 응답).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8%로, 평소 함께 살지 못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설 명절의 가장 큰 의미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명절에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예정인 사람은 68%이다.

전통적인 설날 풍습인 '떡국 먹기(77%)' 또한 4명 중 3명 이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떡국 먹기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8-29세에서는 56%, 30대에서는 69%만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80% 이상이 설날 떡국을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세배 하기' 또한 7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설에 떡국을 먹을 것이라는 사람은 88%, 세배를 할 것이라는 사람은 65%로 모두 과반을 차지한다.

반면 전통적인 명절 풍습 중 하나인 '차례·제사'에 대해서는 43%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에서는 4명 중 1명(24%)만, 30대(36%)와 여성(34%) 중에서는 3명 중 1명 정도만 명절에 차례·제사를 지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차례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59%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따로 사는 친척 만나기'와 '성묘·벌초 및 납골당 방문'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각각 64%로 동일하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이전보다 친척과의 관계는 약해졌으나, 명절을 친족 간 유대감을 쌓는 기회이자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명 중 3명 이상이 설을 전후해 따로 사는 가족 만나기, 떡국 먹기, 세배는 필요하다고 인식
차례 혹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사람은 43%로 절반 이하



질문: 설을 전후해 다음 각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18-29세 중에서는 24%만이 '설에 차례 혹은 제사를 지낼 필요 있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젊은층과 중장년층 간 인식 차이 드러나

(단위 : %)

	사례수 (명)	따로 사는 가족 만나기		따로 사는 친척 만나기		성묘·벌초를 하거나 납골당 방문		차례 혹은 제사 지내기		세배 하기		떡국 먹기	
		필요 하다	이번 설에 할 예정	필요 하다	이번 설에 할 예정	필요 하다	이번 설에 할 예정	필요 하다	이번 설에 할 예정	필요 하다	이번 설에 할 예정	필요 하다	이번 설에 할 예정
전체	(1,000)	84	68	64	49	64	39	43	40	74	65	77	88
성별													
남자 (493)		84	69	68	51	67	43	52	49	79	70	78	89
여자 (507)		84	67	60	48	61	35	34	30	70	60	76	88
연령													
18-29세 (155)		85	67	66	63	52	35	24	38	66	69	56	82
30대 (149)		86	61	57	37	60	31	36	36	69	65	69	86
40대 (175)		84	74	58	38	66	36	43	41	78	71	80	88
50대 (195)		82	66	64	52	70	47	48	44	80	68	83	91
60대 (177)		82	67	66	50	60	40	48	34	74	58	86	88
70세 이상 (149)		87	70	71	53	74	42	59	44	77	58	84	94

질문: (필요성) 설을 전후해 다음 각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계획) 올해 설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설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비고: '필요하다'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 약간 필요한 편이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설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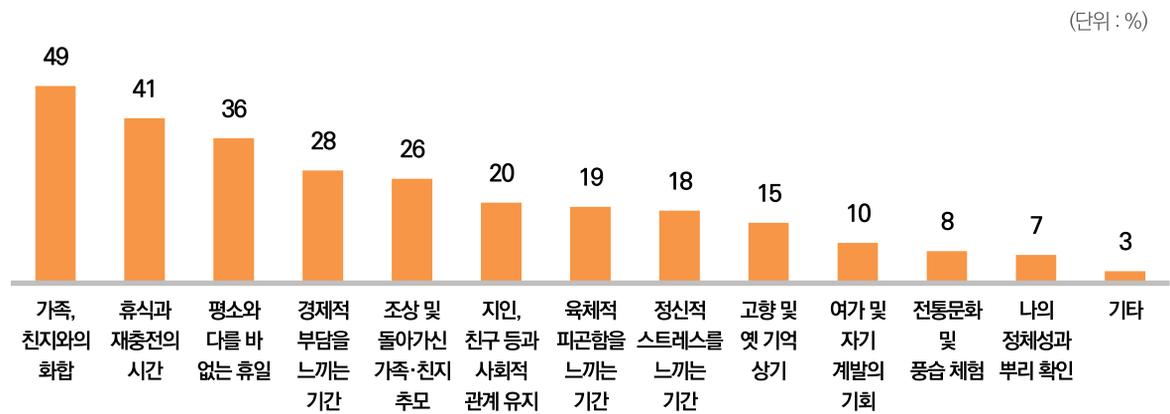
올해 설이 의미하는 바는 '가족 및 친지와 화합(49%)', '휴식과 재충전(41%)' 등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이라는 사람도 36%, 28%는 경제적 부담 느끼는 시간으로 인식

이번 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족, 친지와 화합'하는 기간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49%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41%)',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36%)',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기간(28%)', '조상 및 돌아가신 가족·친지 추모(26%)', '지인, 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 유지(20%)' 등의 순이다. '육체적 피곤함을 느끼는 기간(19%)',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기간(18%)' 등 신체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람도 5명 중 1명 수준이다.

'가족, 친지와 화합'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가운데, 18-29세 및 미혼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번 설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로 받아들인다.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설 명절을 '조상 및 돌아가신 가족·친지를 추모하는 기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60대 32%, 70세 이상 41%).

남녀간 차이를 보이는 지점도 있다. 여성 중에서는 28%가 '육체적 피곤함을 느끼는 기간', 24%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기간'으로 설 명절을 받아들인다. 남성 중에서는 각각 10%, 11%만이 그렇다고 답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올해 설이 의미하는 바는 '가족 및 친지와 화합(49%)', '휴식과 재충전(41%)' 등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이라는 사람도 36%, 28%는 경제적 부담 느끼는 시간으로 인식



질문: 귀하에게 이번 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해당하는 것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18-29세, 미혼인 사람 절반이 이번 설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로 인식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여성은 남성의 두 배**

(단위 : %)

사례수 (명)	가족, 친지 와의 화합	휴식과 재충전 의 시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휴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기간	조상 및 돌아 가신 가족· 친지 추모	지인, 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 유지	육체적 피곤함 을 느끼는 기간	정신적 스트 레스를 느끼는 기간	고향 및 옛 기억 상기	여가 및 자기 개발의 기회	전통 문화 및 풍습 체험	나의 정체성 과 부리 확인	기타
전체 (1,000)	49	41	36	28	26	20	19	18	15	10	8	7	3
성별													
남자 (493)	54	41	36	23	31	24	10	11	20	9	9	10	3
여자 (507)	45	41	36	34	21	16	28	24	10	10	8	4	3
연령													
18-29세 (155)	47	50	51	10	15	26	18	12	14	12	6	4	5
30대 (149)	46	53	37	28	18	14	17	15	15	12	6	6	2
40대 (175)	50	41	38	37	20	17	14	18	14	10	8	7	4
50대 (195)	43	40	28	38	29	20	27	26	10	9	7	5	3
60대 (177)	56	39	30	26	32	22	18	17	19	8	12	5	1
70세 이상 (149)	55	25	37	27	41	19	19	15	17	6	12	12	4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7)	52	49	33	27	22	25	17	18	13	10	7	7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38)	42	53	51	30	24	17	15	16	15	9	6	5	3
자영업자 (127)	53	37	24	31	40	19	14	11	19	9	16	6	2
비경제활동 (388)	49	31	38	28	26	17	24	21	15	9	8	7	6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42)	55	39	36	18	25	23	17	14	16	14	9	7	4
하층 (630)	47	42	37	34	27	18	20	19	14	8	8	7	3
혼인 여부													
미혼 (297)	44	51	52	15	16	23	14	14	13	12	6	5	5
기혼 (569)	54	37	27	34	30	18	22	19	16	8	10	7	2
사별, 이혼 (133)	45	38	39	33	33	19	18	19	16	8	8	6	5

질문: 귀하에게 이번 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해당하는 것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17. ~ 2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4년 12월 기준 전국 96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7,743명, 조사참여 1,74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6%, 참여대비 57.4%)
조사일시	• 2025년 1월 17일 ~ 1월 2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